

'최근 인기' 유튜브 먹방·쿡방

청소년 식습관 형성에 '영향'

방송 시청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채소·생선·콩류 자주 섭취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식 절제 정도는 낮아... "방송 콘텐츠 적절한 활용 필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 시청에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농진청이 먹방·쿡방 시청에 따른 청소년 식생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생 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청소년 87.1%가 먹

방·쿡방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시청 청소년 가운데 97.1%가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 청소년 중 88.8%가 1주일에 1회 이상 먹방·쿡방 프로그램을 본다고 답했으며,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74.4%)해 시청했다. 먹방·쿡방을 시청할 때 관심 있게 보는 음식은 '치킨류(25.7%)'가 가장 많았고, 2위 한식(16.2%), 3위 초밥과 해산물(15.4%)순이었다.

먹방·쿡방을 시청하는 수준에 따라 '즐거 본다', '보통이다', '즐거보

지 않는다' 3개 집단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영양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집단에서 즐겨보지 않는 학생집단보다 채소류 반찬을 많이 섭취하고, 생선류,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평소 먹는 음식 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집단(2.90점)이 다른 집단('보통이다' 2.66점, '즐거보지 않는다' 2.2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의 저녁

식사 외식 횟수는 1주일에 1.62회로, 다른 그룹의 1.22~1.23회보다 많았다. 또한, 먹방·쿡방을 즐겨볼수록 가공 음료, 길거리 음식을 먹는 빈도가 증가해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그룹이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식을 절제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박동식 과장은 "방송 음식콘텐츠는 간식 섭취를 유발해 식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여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청소년기에 건전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송 음식콘텐츠의 적절한 활용과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 실적평가(2019년 실적)'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국민연금공단, 실적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윤진)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 실적평가(2019년 실적)'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기관유형별, 규모별 및 전년 대비 감축률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에 기여한 기관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6.4%를 절감, 전년 대비 7.7%포인트 추가 감축을 달성해 기준배출량 규모별 전년 대비 순감축률 상승 최상위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그간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기기 및 LED조명 보급,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환경친화적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정기적인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 준수 등 직원들의 행태개선을 함께 이끌어낸 덕분에 이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김윤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에너지 절약 선도기관으로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 '전국 최우수 금고 사무소'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지점장 이상우)이 2020년도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및 고객 서비스 연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금고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2개 농협은행 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월 평가한 고객만족도와 고객서비스 점수를 연간 합산해 평가한 것으로 전북 도청지점은 금고 사무소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

이상우 지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서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응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고객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급과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이 2020년도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및 고객 서비스 연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금고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비대면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NH 전북본부, '자산+'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자산 조회와 소비 분석, 금융일정 캘린더, 통합예상연금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 'NH자산+'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NH자산+'는 NH스마트뱅킹 앱 내의 자산관리 콘텐츠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부동산 등 실물자산, 연금,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고객이 잊고 지나가기 쉬운 카드결제일, 예·적금, 대출 만기일 등을 캘린더 형식으로 제공하며, 우수고객 제도에 하나로 고객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우대 혜택 등도 안내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나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1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공사 임직원 20여 명은 지역 농산물과 크리스마스 썸 등을 구입해 선물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70여 가구에 전달했다.

올해 4월부터 공사 임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10%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적립한 후 전북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날 꾸러미도 이를 통해 구입했다.

조성완 사장은 "지역 농산물을 기부어린 이 작은 꾸러미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버섯균 활용 발효천마·속성 된장 특허출원

셀룰로스 등 분해 능력 탁월... 전북농기원, 천연물 성분 변화 이용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미생물을 활용한 농식품 우수 연구 성과인 버섯균을 활용한 발효천마와 속성 발효된장 제조 방법 2건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된 개발기술은 버섯균이 셀룰로스나 다당류 등을 분해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천연물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이용했다.

버섯균을 활용한 천마작품은 천마와 콩으로, 천마는 고열압, 중증, 뇌질환 개선 효능이 보고돼 있으며 콩 역시 생리활성물질인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천마는 자체의 독특한 냄새



로 식품으로 폭넓게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새버섯균으로 6~8일 발효해 천마의 독특한 냄새의 주성분인 파라크레졸을 발효전 대비 57~63% 감소시켰다.

또한 노랑노타리버섯균으로 발효한 콩을 이용한 속성된장은 곰팡이배우로 제조하여 재래식 된장에 비해 숙성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질소,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했고, 콩의 이소플라본이 소화되기 쉬운 저분자 상태로 변환됐다.

농업기술원에서 현재까지 개발하여 등록된 특허는 27건으로 각각의 특허기술은 도내·외 49개 가공업체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그 중 동진마 함유 발효분말은 도내 유산균 생산 전문업체인 (주)케이비에 기술이전해 '비담은 생생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분말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김희준 과장은 "이번 특허기술에 이용한 천마와 콩은 도내 무주와 김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64.5%, 21.5%를 차지하여 도내 재배농가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을 이용한 가공기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조달행정 발전 기여한 기업에 '표창장'

전북조달청, 진성기업 지역 우수조달업체 선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조달 등록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주)진성기업(대표 윤대호)을 지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하고 16일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진성기업은 임실군에 소재한 학생용 가구(책걸상, 신발장 등) 전문 제조업체로 한국산업표준

(KS), 환경인증, 디자인등록, 특허출원 등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에 매진했으며, 단체표준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에도 기여해 가구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조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내실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제조업체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꾸준한 기술연구와 상품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3점슛 1개 성공할 때마다 쌀 10kg 적립'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전주KCC, '사랑의 3점슛' 협약 적립된 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전달... '어부바 정신' 실천

신협중앙회전북지부는 지난 1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 - 2021 프로농구 전주KCC 경기에서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전주KCC농구단이 '사랑의 3점슛'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 오종근 단장(온누리신협 전무), 신협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 전북신협지역협의회 유원영 회장(삼례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KCC농구단이 3점슛 1개를 성공할 때마다 쌀 10kg을 적립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랑의 3점슛은 KCC농구단이 3점슛 1골을 득점시킬 때마다 쌀10kg을 적립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전북지역 71개 신협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전주KCC 이지스농구단은 2011년부터 매년 '사랑의 3점슛' 행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약 2만kg 이상의 쌀을 지원했으며, 두손모아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신협 어부바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은 '신협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연탄과 이불, 전기매트 등의 난방용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 단장인 오종근 전무(온누리신협)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친근미 넘치는 신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은 "전북신협은 지역사회 환원사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입원환자 가족면회도 전면 금지'

전북대병원, 코로나19 환자 급증 속 집단 감염 방지 위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집단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해 모든 병동의 입원환자 면회를 전면 중단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이같은 면회중단 내용을 입원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전 예고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병원은 코로나19감염증 발생 이후 병동 방문객을 전면 통제했지만 입원환자의 가족들에 한해서는 면회를 허용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타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주보호자(간병

인) 1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면회까지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료진이 보호자 면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자 및 유선연락을 통해 1인에 한해 허용하며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대1 교대식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세가 가속화되면서 병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방역을 위한 강화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입원환자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심분 이해하지만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넉넉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